

김성재 문화관광부장관 취임



문화관광부 장관에 김성재 한국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이 취임했다.

김성재장관은 한신대 교수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을 역임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발탁될 정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개혁 마인드가 강하며, 민정수석 시절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정부의 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왔다.

교수시절부터 경실련에서 일하는

등 진보적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해 왔다.

어릴 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하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을 맡는 등 장애인에 특별한 관심이 있다.

부인 김미순(49)씨와 1남1녀 △경북 포항(54) △한신대 신학과 △한신대 교수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 부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 정책기획수석비서관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인쇄업 3분기 소폭 성장전망

3.4분기 중소기업 경기가 계속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건설경기가 크게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인쇄업은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신용보증기금이 최근 1,41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전망 조사에 따르면 3·4분기 기업경기 실사지수(BSI)가 137로 전분기의 140보다는 낮지만 앞으로의 경기를

낙관하는 업체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연 매출액 10억원을 넘는 239개 건설업체의 BSI는 166으로 전분기의 146보다 크게 높아졌다. BSI가 137이라는 것은 경기를 낙관하는 응답자가 비관하는 응답자보다 37%나 더 많다는 뜻이다.

제조업은 전 업종 BSI가 100 이상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의료기기,

자동차, 전기전자통신, 화학제품, 음식료업종은 140이 넘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목재가 구, 종이인쇄, 섬유 의복은 118~127에 그쳤다.

내수업체의 경우 BSI가 139로 수출업체의 BSI(130)보다 높아 여전히 경기호전이 내수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광주, 경남지역의 BSI가 1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구, 경북, 부산은 116~127에 그쳤다.

삼성, PL 관련 인쇄물 사전검사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PL법에 따라 각 표시물 관련 결함을 막기 위해 PL관련 설명서, 설치서, 보증서, 서비스 매뉴얼 등에는 모두 표준화된 주의사항을 게재하고 제품에

부착되는 모든 인쇄물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제품 기획에서부터 설계 제조 양산 판매 AS까지 완벽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한다는 방

침아래 제품의 생산과 유통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예방체제를 갖추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고위관리자 산하에 사업부 별로 PL 사고처리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파주인쇄공단 획지분할



◆ 파주인쇄사업조합은 지난 6월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획지분할을 확정했다.

파주인쇄사업조합(이사장 박용기)은 6월 17일 인쇄문화회관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파주인쇄공단 입주업체별 획지분할을 추첨을 통해 확정했다. 파주인쇄공단은 대부분의 기반공사가 완료되어 10월을 전후해 업체별 건축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입주업체 명단.

1블럭 : (주)웅선비즈니스(노용선) 삼신문화사(최자선) 유하정판(주)(송창화) 반월문화인쇄(백승호) 일진지류(박경재) 삼원지류(유병욱) 세진맥피아(반덕환) 으뜸사(김이백) 한솔인쇄지기(권순창) (주)수정당인쇄(정복진) 서울인쇄공사(박창기) 케이티씨(박찬화) 2블럭 : 타라유통(박우완) 한국문화인쇄(박용) 동화인쇄공사(이동익) 농원문화출판(주)(신향복) 삼광인쇄사(장연식) 한림문화사(이재선) 남양프로세스(홍덕기) 삼광인쇄B(이진수) (주)삼진코팅(박창수) 세종화학(임용환) 홍지미술(이인숙) 안바상사(안준식) 영화인쇄(주)(김흥기) 남한제지(윤복로) 3블럭 : 정문출판(주)(정윤

곤) 진양인쇄공사(노주현) 이화산업사(최동현) 상진인쇄공사(심옥자) 대일인쇄(한태희) 연화인쇄(고창식) (주)한진피앤씨(이종상) 중원페이퍼(신중용) 영풍후염(안원섭) 삼정문

화사(안병일) 우진코티니(김용범) 영인문화사(이영환) 삼구바인텍(유순녀) 상문상사(권종상) 세일피에스(곽기현) 4블럭 : (주)지지인터내셔널(황호근) 가나문화(채영심) 한국문화B(최영욱) 보성문화인쇄(최중철) 한국지업(주)(최삼용) 삼립인쇄(김현수) 일지사(김현래) 경문사(박문규) (주)해성문화(김규식) 보영산업(이광희) 홍일문화인쇄(이연지) 현문사(유해영) 동성인쇄(주)(권가현) 오구산업(신현숙)

5블럭 : (주)신흥사(이강환) 조광출판인쇄(주)(김화현) 삼조인쇄(박용기) ()안의 대표자임.

6월중 인쇄업 신설법인 18개사

인쇄업 창업이 활발하다. 6월중 신설법인이 모두 18개사로 집계됐다. 다음은 명단.

▲ 삼보피피엠(홍중우)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92-30 ▲ 이프기획(김동연) 서울 마포구 동교동 184의24 호 평빌딩 1층 ▲ 소리동산(박소연) 서울 광진구 광장동 114 현대골든텔 3차 709호 ▲ 일흥인쇄(허미원) 서울 중구 초동 10-8 동산빌딩 ▲ 신승프린텍서비스(신순승)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 ▲ 태현기획(이석달) 서울 중구 서소문동 57-7 대건빌딩 501호 ▲ 댁컴즈(김택성) 서울 중구 을지로3가 315-3 을지빌딩 ▲ 디아이(이홍섭) 서울 중구 필동2가 10 층

무빌딩 씨오팔오 ▲ 전동상사(임찬우)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70-6 예림빌딩 3층 ▲ 굿모닝차이나(김동훈) 서울 서초구 반포2동 18-1 ▲ 에이플러스매니아(신철수) 서울 중구 필동1가 3-3 ▲ 서울문화인쇄(강진식) 서울 중구 저동2가 47-6 ▲ 워드(이세희)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86-1 ▲ 디자인클럽(임춘택)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1-9 동문빌딩 ▲ 토호엔터테인먼트(김태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 세계경제신문사(김수달) 서울 종로구 소격동 20-2 ▲ 쿨통(하헌정) 부산 금정구 장전동 422-3 ▲ 코로스물류(이인숙) 광주 광산구 장덕동 992-15.

인쇄업종 생산액 하락

지난 5월 대부분의 중소기업 업종들의 생산액이 증가한데 비해 인쇄업종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이 1천6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5월중 제조업 동향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생산액을 지수화한 생산지수는 105.1로 지난 3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5월 생산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4% 높은 수준이며 지난 4월에 비해서는 0.7% 상승했다. 작년 동월대비 생산액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전기(16.0%), 화학제품 화합물(13.6%), 자동차 트레일러(11.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의복 모피(-11.9%), 출판 인쇄(-0.9%), 목재(-0.2%), 음식료(-0.2%) 등 4개 업종은 소폭 감소했다.

이와함께 전달에 비해 수주가 늘

었다는 업체는 31.4%, 줄었다는 업체는 19.4%로 3개월 연속 수주 증가세가 이어졌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업체는 21.4%로 지난 97년 12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으며 고용감소 업체 비율이 증가업체 비율보다 3%포인트 더 많았다.

설비투자를 실시한 업체 비율은 18.2%로 역시 지난 9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18%를 웃돌았다. 자금사정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업체가 12.9%로 원활하다는 업체(8.0%)보다 4.9%포인트 더 많았다.

‘인쇄’ 또 호황업종지정 말성

국세청이 인쇄업종에 대해 또다시 호황업종으로 지정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통해 인쇄업 등을 선거관련 호황업종으로 분류해 불성실 신고의 경우 일정비율을 선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

이다.

인쇄업계에서는 지난 6.13선거 인쇄물량이 원자재 값을 포함 5백억원 정도에 불과해 특수와는 무관한 데도 호황업종으로 분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연간 인쇄물량이 5조원 가량 이어서 선거인쇄물 5백억원은 1%

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호황업종 지정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타 업종들은 IMF에서 벗어났으나 인쇄업종은 아직도 회복이 안된 상태인데 호황업종 지정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분류한 호황업종은 여론조사, 인쇄업 등 선거관련 업종사업자나 예식관련업종, 레저사업, 부동산중개업소 등이다.

산자부, 인쇄 웹컬러시스템 사업착수

인쇄를 비롯한 모든 산업에 사용되는 컬러를 인터넷에서 통합해 운영하는 시스템이 2007년까지 구축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인쇄 출판 등 모든 제조업종에서 사용하는 컬러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산업 웹(WEB) 컬러시스

템 구축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5년간 총38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모두 50억7,000만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섬유패션업종의 컬러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칼라는 모든 산업,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요소로 적

은 비용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업체들이 중요성을 인식 못해 제품을 잘 만들고도 색상의 미세한 차이로 클레임을 당해왔다”며 “이번 웹 시스템은 산업별로 다양한 컬러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